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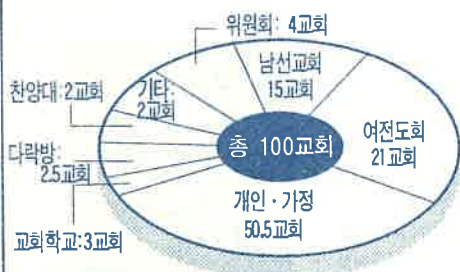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올해의 '100교회 운동'

농어촌 100개 교회와 결연 확정

▼올해의 100교회운동 후원자별 결연현황



올해의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돕기 운동 (이하 100교회 운동)' 이 2월 말 현재 농어촌 미자립 100개 교회와의 결연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자매교회 결연 현황에 따르면 개인 혹은 가정이 50개 교회, 여전도회가 21개 교회, 남선교회에서 15개 교회, 교회학교에서 3개 교회, 다락방에서 2.5개 교회, 찬양대에서 2개 교회, 위원회에서 2개 교회를 각각 후원하기로 했다.

후원자 혹은 부서에서 농어촌의 한 교회를 돕는 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우선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후원자들에게 매주 둘째

주에 자매 교회로 그달분의 후원금을 송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매교회를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편지 등으로 교제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지원하기로 선정된 교회는 원래 117교회였으나 2월 말 현재 100교회만 후원이 결정되어, 전도위원회에서는 아직 후원이 결정되지 않은 교회를 위해 자원하는 후원의 손길이 계속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100교회 운동은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3주년 기념일에 민족복음화의 비전을 두고 시작됐다.

도시화 추세 속에서 날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농어촌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 개척에 앞서 이미 있는 농어촌 교회의 자립을 돕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 어디에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곳곳에 자리잡은 교회가 말씀 선포를 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초점이다.

또 우리 교회가 한 해에 후원할 수 있는 교회는 100교회 정도에 불과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여 '한 몸된 교회관'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또 다른 취지이다.

3월 테마전도 불신 남편·아내 모셔오기

이 달 마지막 주일인 26일 테마전도의 주제는 "불신 남편(아내) 모셔오기".

1월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 데려오기', 2월 '옆(앞·뒷)집 사람 모셔오기'에 이어 전개되는 3월 테마전도 '불신 남편·아내 모셔오기'는 한 가정에서 아직 믿음이 하나되지 못한 짝믿음 가정도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도위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테마전도주일로 정하고 다양한 전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 예배당 건축 현장 소식

지난 주 대학부 학생들이 새 예배당 건축 현장에서 잡일을 하며 봉사해 나갔다.

이번 주 건축 공사는 지상 2층 바닥 및 계단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된다.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건축 공사의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힘써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은교회가 공·사석에서 새 예배당을 위해 기도를 계속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대학부 신입생들에게

신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 새 천년의 봄이 고개를 들고 있다. 3월엔 여기 저기에서 생명의 움트는 소리들로 아우성친다.

서울교회 대학부에도 새 식구들 맞이로 분주하다. 보다 넓은 세계로 발을 그들은 신선하고 아름다운 젊음으로 가득차 있다. 보기만

아 작은 바람이 차지만 그러나 봄을 예감하게 하는 기운이 조금씩 문어 나오고 있다. 정확무오하

해도 희망이 전달되어 오는듯하다. 이제 그들은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만들었던 짐들을 훌훌 벗고 가벼운 몸짓으로 날려

어깨를 펴고 봄하늘을

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맘껏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다. 그러나 그 자유의 잣대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방종으로 흐르지 않기를 기도한다. 주어진 자유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가꾸기를 기대해 본다.

신앙인으로서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할 줄 알며, 당장 눈앞의 즐거움보다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내다볼 줄 알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작은 친절이 큰 기쁨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서울교회 대학부 젊은이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작은 힘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므로 큰 힘을 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그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새 봄에 두 손을 모은다.

이은옥 (권사, 대학부 부감)

이사야 강해

시온성을 보라

이사야 33장 17 - 24절

본문은 앗수르 산헤립의 손에서 해방된 예루살렘의 안정되고 행복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1. 왕의 영광을 보리라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의 왕 되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합니다(17절). 이것은 직접적으로 승전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산헤립이 포위하고 위협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받은 후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 나타날 때 그 모습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 영광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적의 포위망 속의 왕은 고난의 메시아, 승전한 왕은 영광 중에 계시는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백성의 눈은 광활한 땅을 볼 것인데 동서 남북을 바라보아 눈이 미치는 데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끝이 한이 없다는 뜻입니다(계 21:1).

2. 두려움이 사라지리라

곡물을 거두어 들고 금과 은을 검사하며 땅대를 계산하던 앗수르 관리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계산하던 자, 계량하던 자, 계수하던 자' 란 앗수르의 압제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말입니다.

앗수르가 남긴 인상은 강포하고 무서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방언은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을 더욱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서운 모습을 다시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19절).

3. 시온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리라

본문 20, 21절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앗수르군이 유대 땅에서 물러간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장막과 같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옮겨지지 않는 장막, 곧 그 말뚝이 영영히 뽑혀지지 아니하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장막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20절).

이것은 지상의 교회를 비유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에 비해서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동안은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광대한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수나 강이 없는 도시로서 음료수도 부족한 도시입니다. 바빌론은 유브라데 강이 있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을

수나 강으로 둘러싼 요새지로, 앗수르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옛날의 배는 돛대가 없으면 표류를 하다가 파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은 누구나 전리품을 얻어 나누고 심지어는 저는 자와 같은 불구자들도 얻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23절).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는 패하고 성도들은 승리할 것을 비유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땅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라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저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사 33:17-24)



이중운 목사

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하나의 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넓은 하수와 강이 둘러싸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온은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 되고 큰 강과 넓은 하수로 둘러싸 같은 요새지가 됩니다.

4. 예루살렘이 견고하고 안전해진 이유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므로 견고하고 안전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22절). 국가의 삼권(三權)은 이 말씀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삼권을 한 사람이 쥐고 있으면 독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하여 견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에서는 여호와께서 삼권을 다 가지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앗수르는 패하고 유다는 부전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 예루살렘은 넓은 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싸우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앗수르 침략에서 구원을 받고 죄까지 사유함을 받았습니다. 육체가 구원을 받고 죄까지 사함 받은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죄와 병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따라서 모든 질병도 없어집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함은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드는 것을 죄값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육신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영혼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온성을 바라보고 일시적인 환난과 고통 앞에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시온 성과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아직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 승리가 올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사랑부 교사가 되고나서

남태순(사랑부 부감)

사랑부는 말 그대로 사랑이 많은 부서이면서 사랑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서이다. 정신 지체와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다. 지난 12월 교사 임명식 때 내 이름이 교사 명단에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일어나서 선서는 했지만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과 떨림뿐이었다. 이미 활자가 되어 나왔고 선서까지 한 걸 어떻게 하나! 사전에 알았다더라면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 궁리를 하고 못한다고 핑계거리를 댔을 텐데.

한편 생각하니 모태 신앙이면서 뜨겁지 못하고 쉽고 편한 자리만 찾는 나를 고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제 사랑부에서도 2개월이 지났다. 처음 학생들 대했을 때의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불완전한 듯 했던 모습들이 이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됐고 주일 날 보이지 않는 얼굴이 있으면 궁금해진다. 예배는 교회 별관 1층에서 유치부가 끝난 후 드린다. 말씀과 예배인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진 목사님, 부감 이승우 집사님과 여러 봉사의 손길과 수고가 넘친다.

1부 대예배 후 교회 버스 안에서 교사기도회를 마치고 운전운 맡은 집사님들은 버스와 봉고차로 고덕동 주몽학교와 신대방동 나사로의 집으로 학생들을 태우러 간다. 수송 인원의 한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일일이 업고 안고 내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손이 필요한 곳이다. 예배 시간 전 점심식사 때는 옥상 식당에서 밥, 국, 김치를 가져와 여기다 반찬 한두 가지를 더 만들어서 사랑의 오찬을 나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한 상에서 먹으며 수저질이 힘든 이에게 반찬을 일일이 숟가락 위에 놓아주며 음식이 흐른 턱을 휴지로 닦아주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다. 교사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며 소변을 누여야 하고 예배 시간 떠들고 부산한 아이들... 그 속에 있는 티없이 맑고 순수한 마음을 본다. 지난 겨울 성경학교에서는 평소보다 20명이 더 참석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얼마나 신이 나며 춤을 추고 좋아하던지 장애

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이었다.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아닌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가지며 나의 참 구주가 됨을 깨닫는 사랑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 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서울교회 사랑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길 간구한다.

너무 당연했던 것에 대한 해답

이대중(청년부)

"왜 교회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 헌신하여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언제부터인지 너무나 당연해지고 삶의 일부부분으로 고마움을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찾은 수련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목사님의 개회 설교는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 '희망을 갖지 않고 사는 삶' '주님 안에서 야망을 갖지 않은 삶'

'순종하지 않은 삶' '희생하지 않은 삶' '즐거워하지 않은 삶'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지 않고 믿지 않은 삶' 등이 모든 것이 나의 현주소임을 깨닫게 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주님에게 온전히 매달아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서...

강권적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

손재영(청년부)

수련회를 마친 소감은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주님의 강권적 은혜에 감사와 찬양만 드릴 뿐입니다.

시작하기 전엔 어디를 봐서도 도무지 부족하기만 한 수련회였습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련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신앙의 소망과 인내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종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응원하시고자 먼 곳까지 찾아 주신 장로님들, 황금 같은 휴일에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또 한번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정병무 장로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비전과 사랑으로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고경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목사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주기도문을 새로 발견하고서

이운재(중등부)

이번 겨울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다.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들었다. 그 동안 늘 별 생각 없이 부르던 주기도문. 어릴 때는 아무 뜻도 모르고 구구절절이 외우고 다 외우면 상도 받고... 그땐 그게 좋아 주

기도문을 외웠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주기도문을 배우고 나서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 의미가 더욱 확고해졌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반과 요즘 청소년들의 생활 등에 대한 자유 토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축구 등 여러 활동

도 했다. 각자 조끼리 저녁을 해먹기도 했다. 그밖에 찬양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성경학교를 마쳤다.

우리의 신앙은 확실히 수련회를 거듭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다. 물론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수련회의 신앙 훈련으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짐'을 느낀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린다.

“찰칵!”

11교구 식구들 송파구 11교구 형제들이 장지골의 한 식당에서 교구 모임을 가졌다. 이날 기념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한 11교구 식구들.



장지골에 모인 사람들

김혜영(11교구 간사)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1교구 형제들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기 위해 장지골의 한 식당에 모였다.

교회 안의 모든 분들은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특히 송파 지역의 11교구는 다섯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찬양대 지휘자가 두 분이나 계시는 알찬 교구이다. 물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11교구 형제들은 이분들로 인하여 마음이 더욱 든든하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남자 성도들이 참석하는데 힘을 썼고 모두 56명이 모여 교제를 나눴다.

모임 장소에 제일 먼저 도착하신 이종운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 영혼을 유쾌하게 해주셨다.

모인 모든 형제의 신상과 형편을 낱낱이 소개하시며 우리의 교제를 도우신 박철훈 교구장님은 그 설명이 어찌나 자세한지 지난 밤에 11교구 식구들에 대해서 시험 공부하듯 외우고 오셨나 할 정도였다. 우리가 잘 모르는 형제들에 대해서도 장로님은 이렇듯 큰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이시는걸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올해는 새 천년의 시작이며 특히 우리 교회로서는 새예배당 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신 이규정 목사님은 다락방장의 다락방 관리와

태신자, 새신자를 위한 기도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11교구의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교회건축과 태신자, 새신자를 위한 통성기도, 마지막으로 기념 사진 찰칵.

얼굴을 보니 모두가 반가운 얼굴이요 사랑하는 얼굴들이다. 이웃 사촌이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도 있지만 우리는 주 안의 형제가 친척보다 낫다고 해야 하겠다. 일 주일이면 두 세 번씩 만나니 어찌 친척보다 가깝지 않겠는가.

지금까지의 모임이 교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모임은 좀더 경건에 가까이 가기 위한 모임이었다. 11교구 형제들은 이 밤을 인하여 말씀의 감우를 한 겹 더 입은 십자가 군병들이 되었다.

■ 동정 ■

- * 이종운 목사님은 6일(월) 연세조찬기도회, 서울여대이사회에 참여한다. 또 10일(금) 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회 이사회에 참여한다.
- * 이철우·홍의숙 성도 가정(4교구)은 2월 21일(월) 득녀했다.
- * 석남수·이해숙 성도 가정(6교구)은 2월 22일(화) 득녀했다.
- * 성기운·이유미 성도 가정(4교구)은 2월 27일(주일) 득녀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신순우·김복순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루디아전도회는 6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전도자	태신자
손현지	손희장 김희경	박봉옥	박일택 곽효성 이상엽
문진우	문주희 전보람 권아람		이세한
강지숙	유병남	김인수	박희경
안재명	이우철 배종훈 김준태	최치순	이계순 최성순
	임종현	이동만	이영하 오봉인 이동주
박성준	박성호		진장욱 최정상 이은남
박양숙	방금순 은명혜 박도수		정계남 이은용 이은보
임혜경	정수경 임창산		이은덕
성기원	김은정 윤정자 성무경	김성철	김선욱 차경아 김양욱
박운정	박혜원 이소연	문동진	강종필
홍지민	채병민 최정필	정성국	김춘자 정치국 허재성
권재현	장동진 이호영	조대영	양경자
이선주	손혜자 오은환	손재영	손경순 주매리 손우영
노대희	주향자 노세동 노경희		손준영 박경혜
	노용완	강해진	정경애 김아영 김양희
이사내	허정은 이하연		정유진
우스라	최홍점 조영주 박오주	이현욱	이의원 허정임 이명근
	전인길 박삼구	이대중	조선태 전보성 신양식
오유희	박상훈 김성진 오재완		배태환
신성훈	손준형	희희정	최환욱 권복수 최은옥
김은희	맹성준 김인종 김미진		최영희 강은숙
육종호	육종복 육아름 육영재	문희정	문병만 김순영 문주희
	채명산 유영철		문준희 임지혜
권오현	김지영	이은유	차현식 김경미 서경아
김대형	하태환 김정선		이수정 정득현
손대길	손창자 김말난 손경동	이영인	김윤종 김성훈
	박상진 임혜경	박철휘	박승근 정기진 박인나
송명원	송남석 이금자 송강빈		박인교
	남차남	정진원	이승권
손영희	성유정 안재은 김영옥	김주연	신성숙
	유성통	오은경	오현상
홍진신	전은정 김주영 장학숙	서지영	최규영 김희정
홍서연	김성숙 이영현 홍사은	김애환	김규환
노애리	송정민 송애니 신지혜	최요섭	김근도 주정환 구창완
	최지은 박형주		조정형
김윤수	류진이	한명순	방문선 민홍기 김하숙
이대중	이기혁		전 석 양효영

* 태신자 명단은 다음 호에 계속 게재됩니다.

■ 이종운 목사 방상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2.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태신자들과 70인전도대 활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